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5. 3. 28.(금) 06:00 < 3.28.(금) 석간 > 배포 2025. 3. 27.(목)

1차관, 자동차 산업현장 긴급 순회점검

- 자동차 수출관문 평택항과 광명 생산기지 방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박성택 제1차관은 3월 28일(금), 평택항과 기아 광명공장을 잇달아 방문하여 자동차 생산·수출 상황을 점검하였다.

* < 현장점검 개요 >
  평택항: (시간) 10:00~11:00, (참석) 현대글로비스 김태우 부사장 등
  기아 광명: (시간) 13:10~14:30, (참석) 기아 최준영 사장, 명화공업, HL클레무브 대표 등

이번 현장방문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 발표로 글로벌 시장 리스크가 급증한 가운데 업계 예상피해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다. 박 차관은 평택항에서 자동차전용운반선에 올라 자동차 선적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기아 광명공장에서 자동차 제조라인을 둘러보았다.

업계는 미국 관세조치로 인해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미측과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품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장 다변화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다.

박 차관은 어제 자동차 품목관세에 이어 곧 상호관세 발표도 예고되어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적지 않은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오늘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포함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동차 산업 지원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 전년보다 19% 이상 증가한 24조원의 국내 투자를 차질없이 추진중이라는 설명에 대해, 박 차관은 기업투자환경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국내 산업 생태계의 유지·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하였다. 끝.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	책임자	과 장 박태현 (044-203-4320)
		담당자	서기관 김은성 (044-203-4321) 사무관 채기천 (044-203-432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